

#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요 약 보 고 서

2023. 2.



# 제 출 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귀중

본 보고서를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조사기관 : (주)비온드리서치  
총괄책임자 : 백 경 현 대표이사

## [이용자 안내]

---

- 통계표 및 도표내의 숫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 숫자 없음      0 : 단위 미만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 목 차

## 제 1장 조사개요

<b>1. 조사의 배경 및 목적</b> .....	<b>1</b>
가. 추진근거 .....	1
나. 실태조사 필요성 및 목적 .....	1
<b>2. 과업의 범위</b> .....	<b>1</b>
<b>3. 실태조사 구성</b> .....	<b>2</b>
가. 조사대상 .....	2
나. 조사의 범위 .....	2
다. 조사 시기 .....	3
<b>4. 조사 설계</b> .....	<b>3</b>
가.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	3
나. 경남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	3
<b>5. 조사내용</b> .....	<b>4</b>
가. 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	4
나.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	5
<b>6. 자료검증 및 처리</b> .....	<b>6</b>

## 제 2장 경남 예술인 분석결과 요약

<b>1. 경남 전문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b> .....	<b>9</b>
가. 일반현황 .....	9
나. 수입 및 지출 수준 .....	9
다. 예술활동 .....	10
라. 창작활동 여건 .....	12
마. 예술인 생활 및 근로환경 .....	13
바.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	16

사. 경남 전문예술인 청년층(20대~30대) 심층 분석 .....	18
아. 경남 전문예술인 권역별 심층 분석 .....	20
<b>2. 경남 생활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 .....</b>	<b>23</b>
가. 일반현황 .....	23
나. 수입 및 지출 수준 .....	23
다. 예술활동 .....	24
라. 창작활동 여건 .....	25
마. 예술인 생활 및 근로환경 .....	26
바.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	28
<b>3. 경남 예비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 .....</b>	<b>30</b>
가. 일반현황 .....	30
나. 전공 선택 및 만족도 .....	30
다. 향후 진로 .....	31
라. 경남 예술현황 및 지원사업 인식 .....	33

### 제 3장 경남 예술인 복지 정책 제안

<b>1. 경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제안 (2023~2027) .....</b>	<b>37</b>
가. 추진 배경 .....	37
나. 비전 및 전략 체계도 .....	38
다. 추진과제 .....	39
라. 추진일정 .....	45
마. 사업별 소요예산 .....	47
바. 비전 및 전략체계도 연계 추진과제 우선순위 설정 .....	49
<b>2. 자원 확보 방안 .....</b>	<b>50</b>
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정 상황 및 구조 .....	50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자원 조성 방안 .....	51

| 2 0 2 2 년    경 남    예 술 인    실 태 조 사 |

##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가. 추진근거

- 경상남도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에 근거한 실태조사 진행
  - 경남 예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정기적 조사로 예술인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 및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지난 2019년 1회차 조사 이후 실시되는 2회차 조사임

### 나. 실태조사 필요성 및 목적

- 지역 조례에 근거한 지역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현황 파악
- 도내 예술인의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됨
- 경상남도 예술인 실태조사의 체계화 정립 가능

## 2.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총 3가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됨

### (1) 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기반한 예술인 복지정책 조사
- 경상남도 및 타 지역 예술인 복지정책 현황 파악
- 경상남도 및 타 지역 창작공간 현황 조사

### (2)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설문안 구성
- 경남 도내 거주 및 활동하는 예술인 조사 진행 (생활예술인 및 예비예술인)
- 결과 분석

### (3) 시사점 도출 및 정책제언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예술인 현황 진단
- 경남도의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3. 실태조사 구성

#### 가. 조사대상

- 예술인 실태조사 : 2022년 조사 시점 기준, 경남 도내 거주 및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및 생활예술인 대상
-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 2022년 조사 시점 기준, 경남 도내 예술관련 학과 재학생 대상

#### ▣ 참고 : 예술인 유형 구분

- 전문예술인 :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필요한 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예술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예술인 해당 예술분야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 예술인 (전시, 공연, 출연, 발표회, 등단 등)
- 생활예술인 :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학습, 창작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개인활동 예술인 및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인
- 예비예술인 : 예술인의 성장단계 중 가장 처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술관련 학교 및 학과를 재학중이거나 예술활동을 준비중인 예술인이나 아직 정식적인 데뷔를 하지 못한 예술인을 통칭

#### 나. 조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거주지역 관점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체

##### 2) 시간적 범위

- 예술인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2020년~2022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일부의 경우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여 최근 5년 이내 예술활동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음
- 예비예술인 실태조사는 조사시점(2022년) 기준 도내 예술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로 시간적 범위는 현재시점임

##### 3) 내용적 범위

-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경남 예술인의 예술활동 관련 현황
  - 둘째, 경남 예술인의 생활 및 근로환경
  - 셋째,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지원 정책 수요 의견

- 경남 예비예술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는 다음의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전공선택 이유 및 만족도
  - 둘째, 향후 진로계획
  - 셋째, 경상남도 예술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 다. 조사 시기

- 조사 기준 시점 : 2022년 12월
- 조사 대상 기간 : 2022년 12월 기준 최근 5년 또는 최근 3년
- 조사 진행 시기 : 2022년 12월 5일 ~ 2023년 1월 20일

### 4. 조사 설계

#### 가.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 확인 후 실제 본조사 실시
- 1차 응답자 확보를 위해 확보된 모집단 전원에 대한 문자 및 이메일 발송으로 조사참여 독려
- 추가 응답자 확보를 위해 기존 응답자 소개 방식을 이용한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이용

[표1-1]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목표모집단	경상남도 거주 및 활동 예술인
조사모집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예술인 명부 활용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전화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나. 경남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 경남 예비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경남지역 예술학과 정보를 파악하여 재학생 대상으로 조사 진행
  -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등
- 각 대학별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과실에 직접 연락하여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온라인 조사 링크 전달 방식을 통한 조사 진행

[표1-2] 경남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목표모집단	경남지역 예술학과 재학생 (예비예술인)
조사모집단	도내 소재 대학교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학생 명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이메일/전화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5. 조사내용

### 가. 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 경남 예술인 대상의 조사항목은 6개 범주의 56개 문항으로 구성됨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은 동일한 설문 문항으로 진행

[표1-3] 경남 예술인 대상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현황, 수상경험</li> <li>• 현 거주지,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및 SNS주소</li> <li>• 장애인등록증 보유 여부</li> <li>• 최근 3년간 가구 전체 연수입, 개인 연수입, 예술활동 수입 비율</li> </ul>
예술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활동지역</li> <li>• 예술활동 유형, 타 경제활동 유형</li> <li>• 예술활동 경력, 주요 예술활동 분야, 예술분야 직업유형</li> <li>• 소속 예술인 협회 및 단체</li> <li>• 해외 예술활동 경험, 활동 국가, 활동 유형, 해외 활동 시 애로사항</li> <li>•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여부, 발급 연도, 미발급 사유</li> </ul>
예술활동 공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보유 여부, 창작공간 소유 형태, 공간크기/임대료 수준</li> <li>• 공동활용 공간 유형,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 창작공간이 없는 경우 주 창작활동 장소</li> <li>• 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 공연을 위한 장소 대관 이용 경험</li> </ul>
생활 및 근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지출항목별 비율, 예술 활동 및 생활 측면의 수입 수준</li> <li>• 4대 보험별 가입여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예술분야 실업급여 수혜 여부</li> <li>•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단절 기간, 단절 이유</li> <li>•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 여부 및 보유 갯수</li> <li>• 예술활동 일수</li> <li>•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 피해횟수, 피해 유형</li> <li>•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인지도, 권리 보호 체감 수준</li> <li>• 예술활동 관련 취/창업 경험</li> <li>• 예술인 취/창업 지원사업 인지도,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의향, 취/창업 지원 시 필요 지원</li> <li>• 예술인 해외교류 확대 지원사업 참여의향, 교류 선호 국가, 해외교류 지원 시 필요 분야</li> <li>• 문화예술 창작활동 여건별 중요도 및 만족도</li> </ul>

구분	조사 내용
경상남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관련 정보 획득 경로</li> <li>바람직한 예술인 지원정책 방향, 지원정책 혜택 우선순위</li> <li>문화예술분야 활성화 어려운 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유형별 확보 수준</li> <li>예술활동 지원 수혜여부, 지원기관, 지원 유형,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li> <li>경상남도 예술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li> <li>코로나19로 지원 수혜 경험, 지원유형, 만족도 수준</li> </ul>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지원사업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공모지원사업 신청 시기, 최종 선정 시기</li> <li>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li> </ul>

## 나. 예비예술인 실태조사 내용

○ 경남 예비예술인 대상의 조사항목은 6개 범주의 56개 문항으로 구성됨

[표1-4] 경남 예비예술인 대상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li> <li>전공분야</li> </ul>
예비예술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공 선택 이유</li> <li>전공 및 교육과정별 만족도</li> <li>전반적인 전공 만족도</li> </ul>
예비예술인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 후 진로계획</li> <li>현재 고민사항</li> <li>졸업 후 예술활동 희망 지역 / 희망지역 선택 이유</li> <li>주요 구직경로</li> <li>예술활동을 통한 월 평균 수입 수준</li> </ul>
경상남도 예술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지원사업 인지도</li> <li>청년예술인 정책 사업의 중요사항</li> <li>예술인 취/창업 지원사업 인지도,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의향, 취/창업 지원 시 필요 지원</li> <li>예술인 해외교류 확대 지원사업 참여의향, 교류 선호 국가, 해외교류 지원 시 필요 분야</li> <li>멘토링 지원사업 필요도 / 멘토링 지원사업 필요요소</li> <li>문화예술 창작활동 여건별 중요도 및 만족도</li> </ul>

## 6. 자료검증 및 처리

-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자료의 오류 제거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정확한 응답 자료와 신뢰성을 확보
  -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사전 시스템 구축 시 기본적인 오류 (무응답, 논리적 오류, 잘못된 데이터 입력 등)를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응답 참여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 적용으로 오류 제거
  - 이후 조사 시작 전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여 웹 설문문의 논리적 오류가 없도록 사전 검증을 진행함
- 최종 조사된 유효표본 응답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정성의견(주관식 형태)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부호화 작업인 코딩(Coding)을 통해 데이터 정리를 진행함
  - 이후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최종 Raw-Data로 구축하고 분석에 사용함

[표1-5] 자료처리 프로세스

응답내용 확인 (Editing)	입력 및 부호화 (Punching/Coding)	데이터 검증 프로세싱 (Data Cleaning)	최종 Raw-Data 확보 및 분석 (Data Analysis)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	설문 자료 입력 및 주관식 내용의 부호화	입력 자료의 논리적 오류검색	데이터 분석 명령어 작업

| 2 0 2 2 년    경 남    예 술 인    실 태 조 사 |

## 제2장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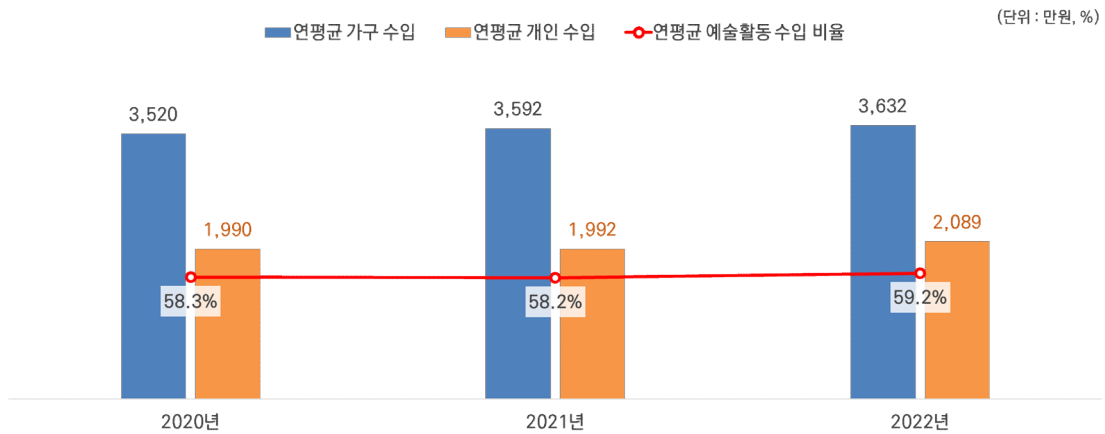
## 1. 경남 전문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

### 가. 일반현황

-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예술인은 총 1,930명임
  - 여성 55.8%, 남성 44.2%
  - 50대가 27.8%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3.8%, 40대가 23.5%, 30대가 18.7%, 20대가 6.1% 순 (평균연령 49.6세)
  - 거주지역은 창원시 41.7%, 김해시 14.6%, 진주시 11.7%로 3곳의 전문예술인이 전체 68.0%를 차지
  - 활동분야는 미술이 28.8%, 문학이 17.0%, 음악이 13.2%, 공예 8.7%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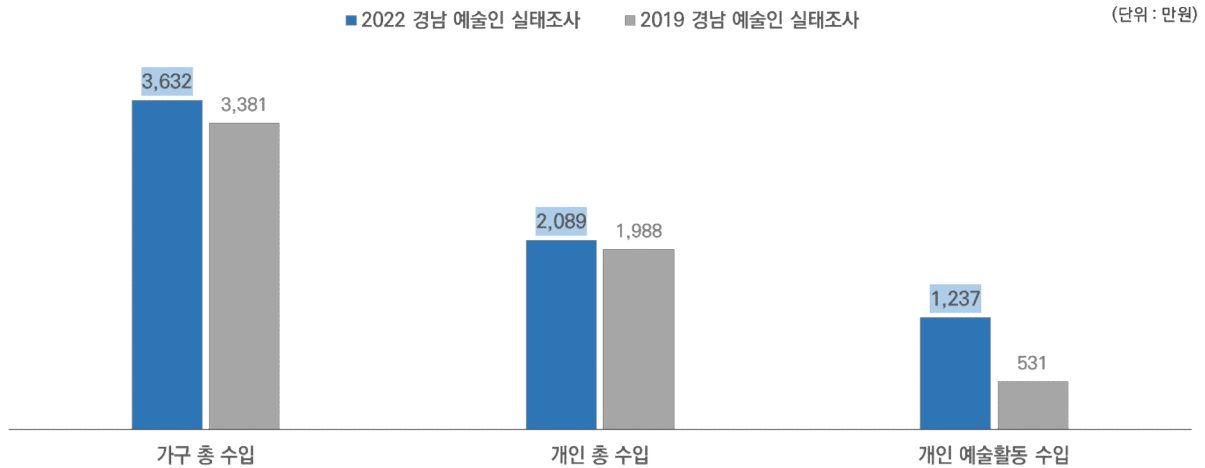
### 나. 수입 및 지출 수준

- 전문예술인 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2020년 3,520만원, 2021년은 3,592만원, 2022년은 3,632만원, 개인 연평균 수입은 2020년 1,990만원, 2021년 1,992만원, 2022년 2,089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개인 예술활동 수입 금액으로는 2020년이 1,160만원, 2021년은 1,159만원으로 유사하였으나, 2022년에는 1,237만원으로 평균 78.4만원 증가함



<그림6-1> 전문예술인 최근 3개년 간 수입현황 (n=1,249)

- 2019년 실시된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의 수입 결과와 비교하면, 가구 총수입은 3,632만원으로 지난 2019년 예술인 연간 가구 총수입 3,381만원 보다 약 251만원 많고 개인 총수입은 2,089만원으로 지난 2019년 예술인 연간 개인 총수입 1,988만원 보다 약 101만원 많음
  - 예술활동 수입은 2022년 평균 1,237만원이나, 2019년은 평균 531만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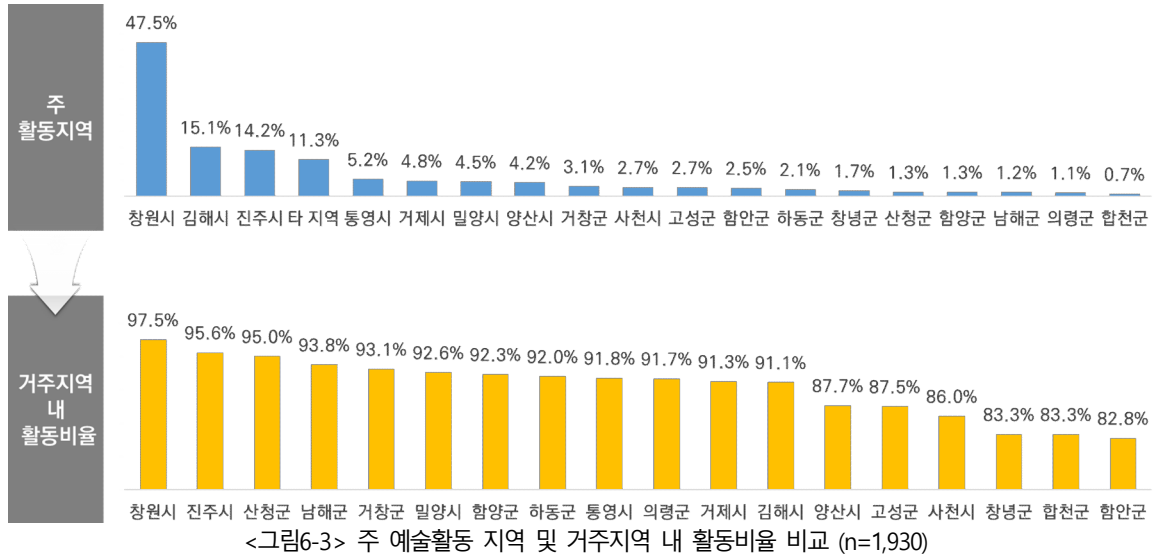


<그림6-2> 전문예술인 연간 수입현황 비교 (2019 vs 2022)

-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생활비가 전체 57.8% 가까이 차지하면서 예술활동 (19.3%) 및 개인 예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계발비(12.5%)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확인됨
  - 전문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중은 전체 지출액의 31.8%를 차지
- 결과적으로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수입은 생활비로 활용됨에 따라 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범위가 축소하고 예술활동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

#### 다. 예술활동

- 주 활동지역으로 창원시가 47.5%로 가장 많고, 김해시 15.1%, 진주시 14.2%, 경남 지역 이외 활동이 11.3% 등의 순임
  - 경남 예술인들은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예술활동 형태는 거주지역 내에서 예술활동을 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편의가 제공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지역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반대로 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줄어들어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최소한 경남 도내 지역 내에서는 지역 간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술관련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연계 예술활동 기회나 행사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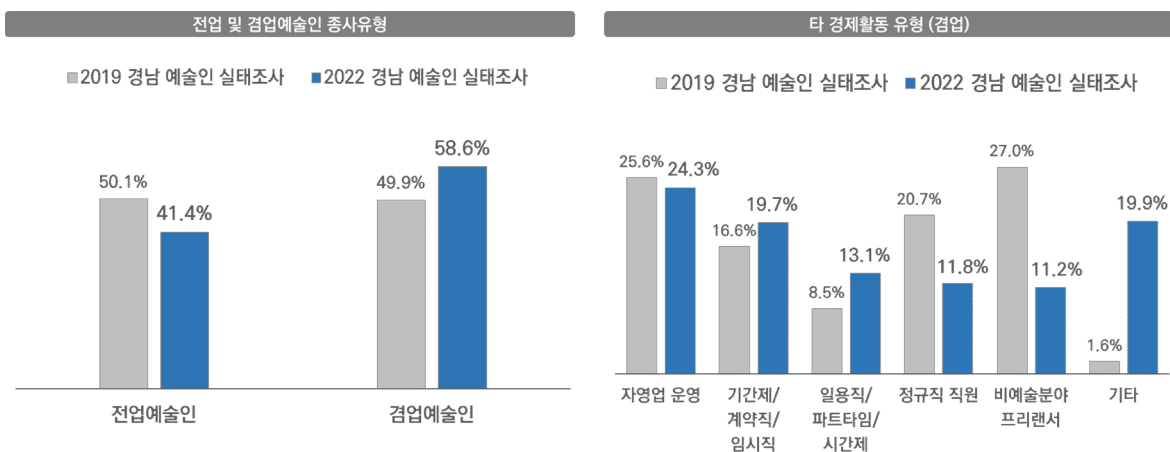
○ 전문예술인의 활동경력은 약 18.5년 정도임

- 연령과 비교하면 대체로 예술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대략 20~30대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됨

○ 전문예술인 중 전업예술인은 41.4%, 겸업예술인은 58.6% 정도이며,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겸업예술인의 비중이 3년 사이 8.7%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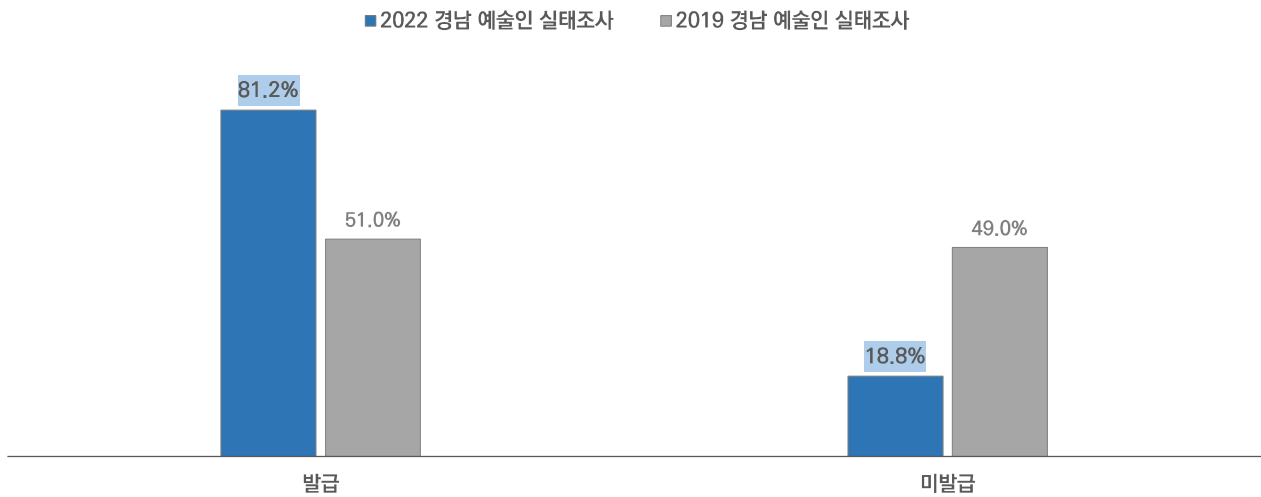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겸업예술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겸업예술인 종사 시 타 경제활동 유형은 자영업이 24.3%로 가장 많음.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자영업 운영 비율은 1.3%p 감소하고 정규직 비율 역이 8.9%p 감소한 반면 기간제/계약직/임시직과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비중은 크게 증가함



<그림6-4> 전업 및 겸업 종사유형 및 타 경제활동 유형 비교 (2019 vs 2022)

- 전문예술인의 81.2%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19년 결과(51.0%)와 비교하면 발급률은 30.2%p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 다양한 중앙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술인으로써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측면에서 활동증명 발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조건이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최근 3년 동안 발급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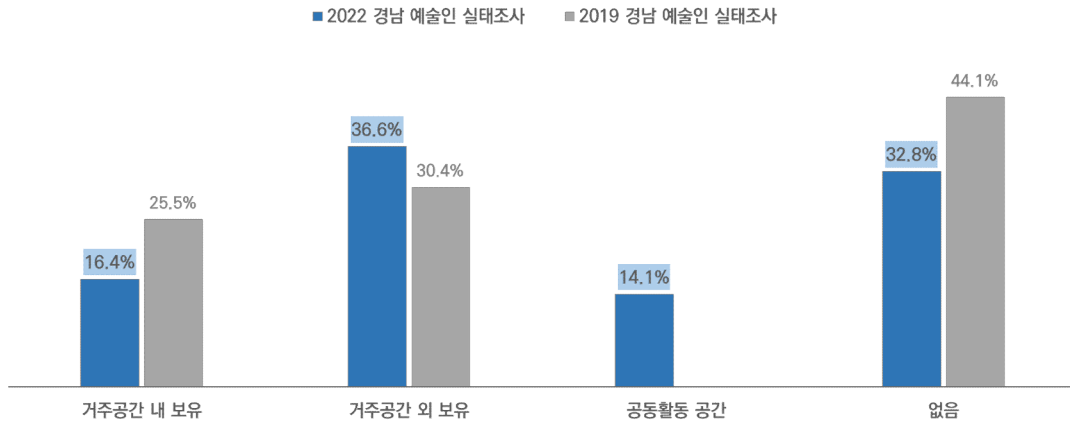


<그림6-5>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률 비교 (2019 vs 2022)

- 반면, 활동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이유로 제도나 증명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한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아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라. 창작활동 여건

- 경남 예술인의 창작활동여건 중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는 36.1%로 나타났고, 거주공간이 아닌 외부 개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음
  - 외부 공간 이용형태는 주로 임대(월세) 형태가 가장 많고, 외부 공간의 크기는 약 32평 정도이나 매월 임대료가 적게는 37~40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외부 공간 활용을 위한 임대료 지출은 예술인에게 매우 부담되는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거주공간 내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가 25.5%였으나, 2022년에는 16.4%로 9.1%p 감소한 반면, 거주공간 외 보유한 경우는 2019년 대비 6.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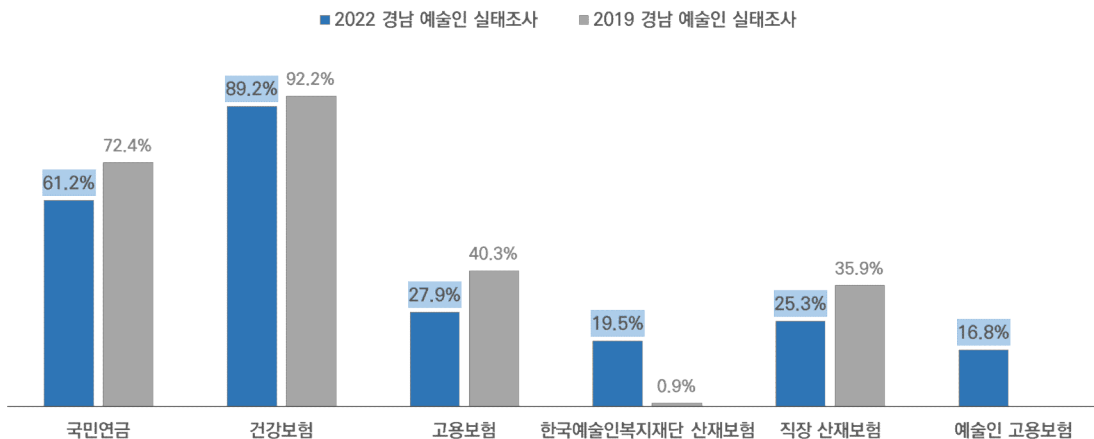


<그림6-6>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여부 (2019 vs 2022)

- 예술활동 및 전시, 공연을 위해 외부 장소를 대관하여 이용한 경험도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고, 주로 실연예술 분야의 경우 장소 대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 예술인 생활 및 근로환경

- 전문예술인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27.9%)과 직장 산재보험(25.3%)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보다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19.5%)과 예술인 고용보험(16.8%)의 가입률이 더 낮은 모습을 보임
  - 예술인의 경우 주로 개인활동 및 프리랜서 활동 비율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이나 직장 산재보험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나, 이를 보완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고용안정과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인 관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가입 유도가 필요함
- 2019년 가입률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직장 산재보험 등의 주요 4대 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결과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술인에 특화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가입률은 크게 증가함



<그림6-7> 4대 보험 종류별 가입률 비교 (2019 v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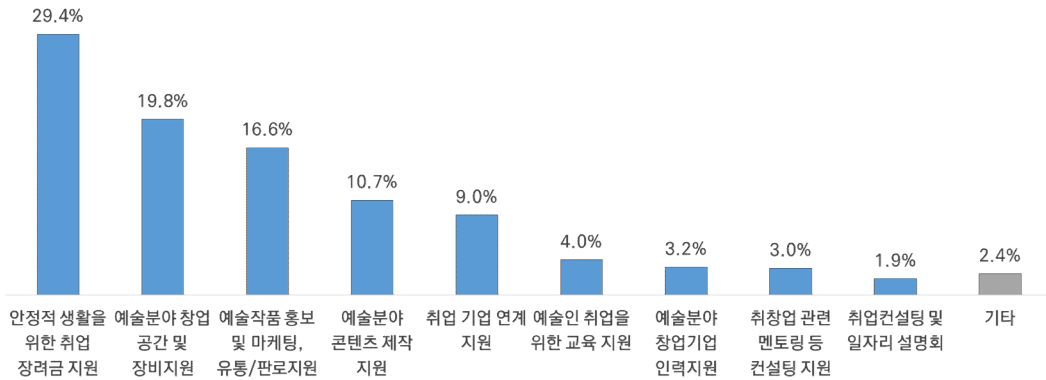
- 실업급여 수혜 경험도 수혜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 84.5%로 대다수이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혜 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안내가 필요함
- 경남 예술인 10명 중 3명 정도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32.4%), 이 때 경력단절 기간은 약 3.7년임
-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서는 생계유지로 인해 단절된 경우가 4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의 기본적인 수익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 2019년 조사의 경력단절 현황과 비교하면, 경험률은 2019년 28.3%에서 2022년 32.4%로 약 4.1%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2019년 3.2년, 2022년 3.7년으로 약 0.5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의 비율과 단절 기간은 증가하였으며, 단절 이유로는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출산/육아 또는 코로나19의 영향 원인 등 여러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됨

[표6-1] 경남 예술인 경력단절 현황 조사결과 비교 (2019 vs 2022)

구분		A. 2022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B. 2019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GAP (A-B)
경력단절 경험		32.4%	28.3%	+4.1%p
경력단절기간		3.7년	3.2년	+0.5년
주요 경력단절 이유	생계유지+예술일 감소	56.3%	67.2%	△10.9%p
	출산/육아	17.7%	6.6%	+11.1%p
	건강문제	8.5%	11.5%	△3.0%p
	학업	3.5%	3.3%	+0.2%p
	기타	14.0%	11.5%	+2.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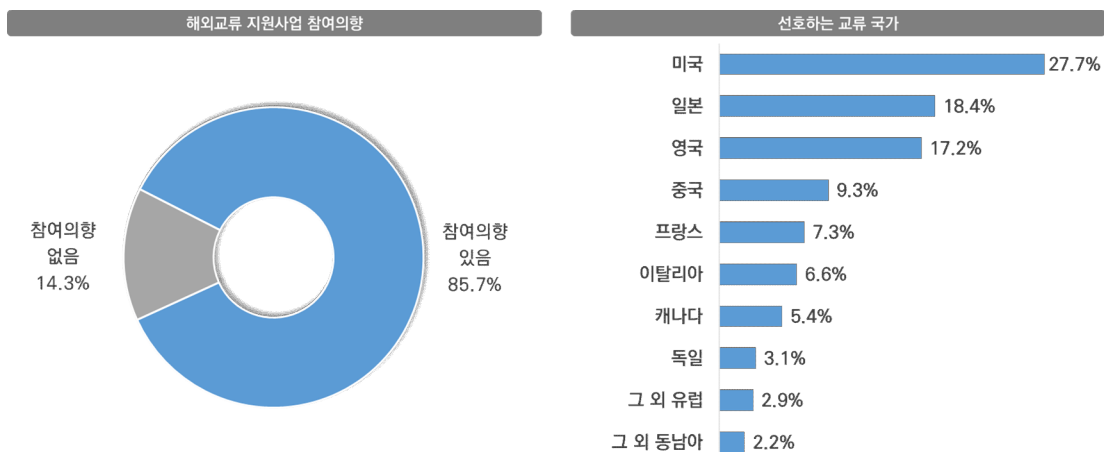
- 전문예술인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약 55.3%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계약서 자체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38.2%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6.0%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였으나, 앞서 계약서 미체결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유형으로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 76.0%로 가장 많음
- 지난 2022년 9월에 실시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55.1%)가 과반수 이상이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36.0%)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대상 취/창업 지원사업 인지도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45.7%)도 많았으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42.2%로 높게 나타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반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의향(77.8%)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취/창업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 때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안정적 생활을 위한 취업 장려금 지원(29.4%)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업과 관련해서는 공간 및 장비지원(19.8%)도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6-8> 예술인 취/창업 지원 시 우선 필요지원 분야 (n=1,607)

- 예술인을 위한 예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교류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의향률은 85.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인들의 해외활동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나 자금마련 등의 문제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지원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외교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결과 역시 자금지원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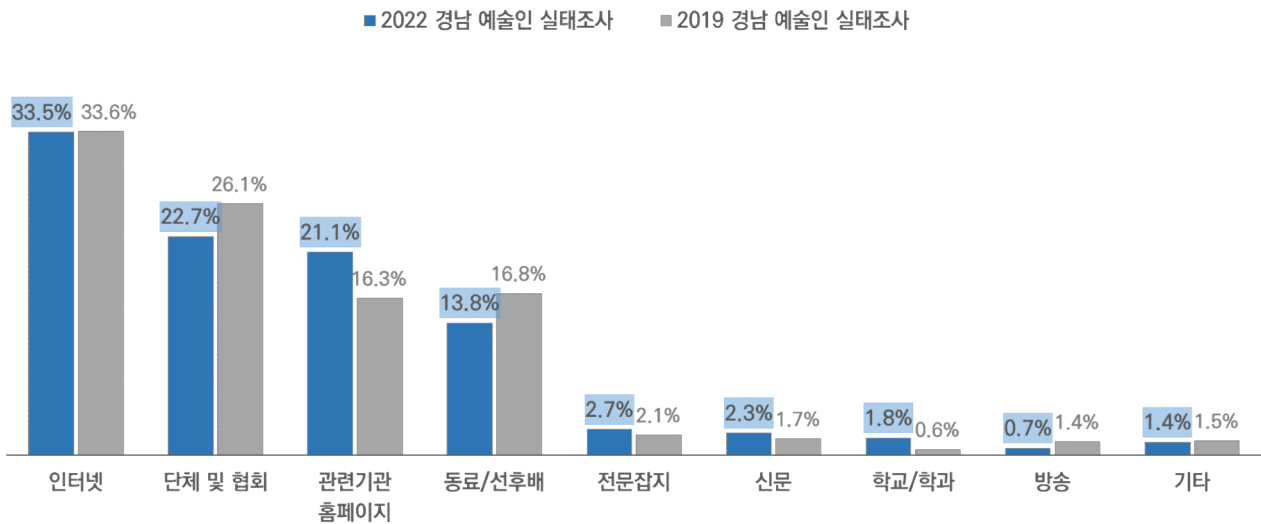


<그림6-9> 해외교류 지원사업 참여의향 및 선호하는 교류 국가 (참여의향 n=1,607, 선호국가 n=1,377)

- 도내 문화예술 창작여건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창작발표 기회 제공, 외부 규제강화 측면 등으로 나타났고, 반면 앞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는 창작공간의 수와 경제적 보상, 공적 지원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바.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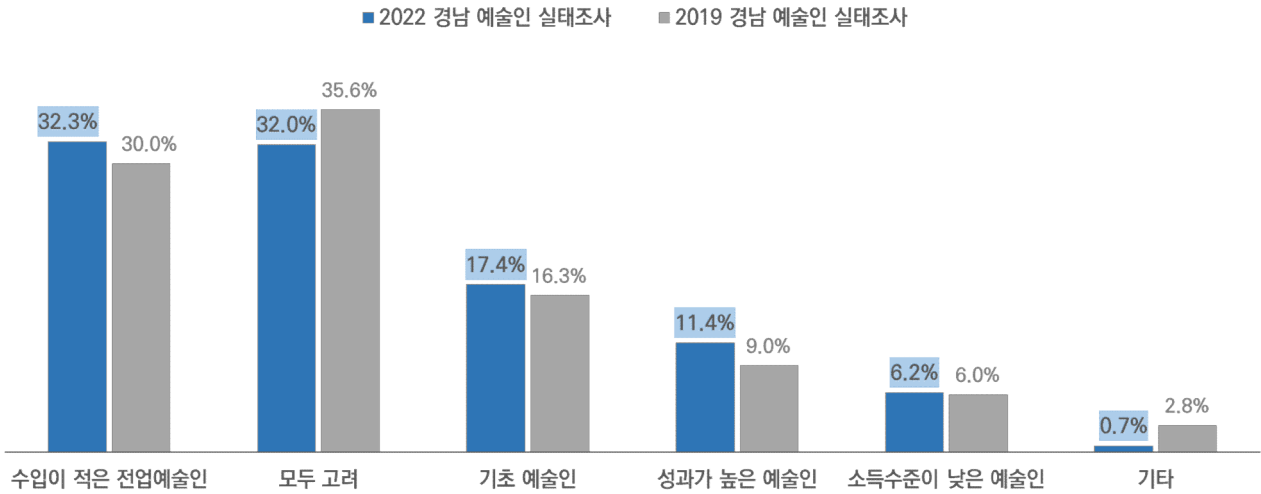
- 전문예술인의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활용이 33.5%로 가장 많았고, 단체 및 협회 활용이 22.7%, 기관 홈페이지 활용이 21.1% 등의 비율을 보임
  - 온라인의 경우 예술인 개인에게 정보가 직접 도달하거나 언제든지 원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 플랫폼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함께 도내 예술단체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제공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정보 획득 경로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며, 인터넷과 단체 및 협회를 통한 획득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획득 비율은 4.8%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6-10> 예술관련 정보 획득 경로 (2019 vs 2022)

- 예술인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생활수준과 예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의 선호도(44.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순히 예술인이라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니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인식보다 예술적인 성과도 함께 고려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의 선호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예술인 지원정책 혜택의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인식결과 수입이 적은 전업예술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활동분야, 전업여부, 생활수준, 예술적 성과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32.0%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2022년에는 모두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6%p 감소한 반면, 수입이 적은 전업예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3%p 증가함. 기초 예술인 또는 성과가 높은 예술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2%p씩 증가됨
  - 이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대체로 동의하나 그 외 다양한 유형의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그림6-11> 예술인 지원정책 혜택 우선순위 (2019 vs 2022)

- 도내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활동지원의 부족이 50.7%로 나타났고, 인프라 부족, 문화예술 향유기회 부족이 23.6%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수준 종합적인 인식도는 100점 만점에 28.5점임
  - 이는 ‘다소 부족한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의 공간 확보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됨
  - 특히, 창작공간 확보에 대한 인식(27.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인 66.0%는 최근 3년 이내 예술활동 지원 수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원유형은 예술활동 지원 유형(94.0%)이며, 지원받은 기관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이 전체 61.9%를 차지함
  -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탈락해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고, 지원정책에 대한 미인지 비율은 22.9%로 나타남
- 경상남도 예술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책은 ‘도 기능 확대’, ‘행정 전문성 확보’, ‘문화계 의사반영’, ‘전문 예술가 육성’, ‘도민 예술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경제적 지원’, ‘활동공간 및 시설의 확충’, ‘예술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52.2%)에 가장 많은 응답이 모였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도(45.1%)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사. 경남 전문예술인 청년층(20대~30대) 심층 분석

- 경남 전문예술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60대 이상(23.8%) > 40대(23.5%) > 30대(18.7%) > 20대(6.1%) 순으로 나타나 청년층(20~30대)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됨
- 2020년 이후, 청년층의 연평균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 내에서 청년층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타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 특히, 20대 전문예술인의 연평균 예술활동수입은 전년대비 2021년에 30.4%, 2022년에 29.8% 증가하여 타 연령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30대의 예술활동수입 증가율 또한 전년대비 2021년에 11.1%, 2022년에 9.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6-2] 연령별 연평균 예술활동 수입현황 및 전년대비 증가율(단위 : 명, 만원)

구분	사례수	2020년		2021년		2022년	
		예술활동수입	예술활동수입	2020년 대비 증가율	예술활동수입	2021년 대비 증가율	
전체	1,249	1,160	1,159	-0.1%	1,237	6.7%	
연령	20대	91	657	857	30.4%	1,112	29.8%
	30대	202	1,158	1,287	11.1%	1,404	9.1%
	40대	236	1,312	1,270	-3.2%	1,412	11.2%
	50대	386	1,242	1,222	-1.6%	1,272	4.1%
	60대 이상	334	1,007	961	-4.6%	972	1.1%

- 전문예술인의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대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0%)이 ‘창작공간이 없다’ 고 응답하여 예술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연령별 ‘창작공간 없음’ 비율 : 30대(34.6%) > 40대(34.4%) > 60대 이상(33.9%) > 50대(23.1%)
- 청년층의 예술활동 공간 부족에 대한 의견은 경남 예술인 좌담회(FG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음
  - 공간대여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며, 대여 비용도 부담스러움
  - 지자체에서 빈 집이나 빈 건물 등을 활용하여 예술인들이 대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인프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임
- 전문예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해 물어본 결과, 30대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39.0%)가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여 가장 경험률이 높았으며, 30대의 경력단절 이유로는 ‘생계유지로

다른 일 종사' (43.8%)가 가장 많았음

- 한편, 20대 전문예술인의 경력단절 경험은 32.7%였으며, 그 이유로 '예술 관련 일이 줄어서' (28.1%)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좌담회(FGI) 청년 그룹 의견 중에서도 예술 관련 기회가 부족하여 지역 예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공모 등 행사가 주로 이루어다보니 경남 지역에서는 기회가 적음
  - 경남 내에서도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발달한 창원, 진주 지역 위주로 예술 활동 기회가 주어짐
  - 행정적인 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문예술인에게 취/창업 시 우선 필요한 지원을 물어본 결과, 20대에서 '안정적 생활을 위한 취업 장려금 지원' (32.7%) 및 '예술 분야 창업 공간 및 장비 지원' (22.4%)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 대비 특히 높게 나타남
- 좌담회(FGI) 청년 그룹 의견 중에서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단발성 지원사업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개인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음
  -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
  - 강의식 교육뿐 아니라 현장 실습 체험 기회를 주거나, 실제 창업 사례에 대해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음
- 전문예술인 중 최근 3년 이내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은 기관을 물어본 결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대에서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대(59.5%)에서 다음으로 낮았음
  - 연령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원 경험 비율' : 40대(64.3%) > 60대 이상(62.4%) > 50대(61.8%)
- 한편, 청년층에서는 '예술관련 진흥기관' (20대 : 21.4%, 30대 : 22.0%)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타연령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에 대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예술활동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라는 응답은 20대에서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30대(29.1%)에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청년 그룹 좌담회(FGI) 결과에서도 지원사업 관련 홍보가 더 필요하며 여러 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음

- 또한 전문예술인이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 중 ‘인터넷’ 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30대에서 4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20대(36.7%)에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사업 홍보가 필요하며, 이 때 온라인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아. 경남 전문예술인 권역별 심층 분석

- 거주권역별 주요 예술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미술’ 분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부권역에서 29.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서부 : 28.2%, 동부 : 26.9%)
- 한편, ‘문학’ 분야는 서부권역(19.3%)에서, ‘공예’ 분야는 동부권역(1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6-3] 거주권역별 주요 예술활동 분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미술	문학	음악 (양악, 클래식)	공예	국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포함)	무용	대중음악	
전체	1,930	28.8	17.0	13.2	8.0	7.8	4.9	4.7	3.9	
거주 권역	동부권역	443	26.9	15.6	14.9	14.0	5.0	3.6	5.0	4.7
	중부권역	1,068	29.9	16.8	14.0	5.3	8.1	5.2	4.9	3.6
	서부권역	419	28.2	19.3	9.5	8.6	10.3	5.5	3.8	4.1

[표6-4] 거주권역별 주요 예술활동 분야 - 이어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사진	다원예술	영화 (애니메이 션 포함)	만화 (웹툰 포함)	문예일반	기타	방송연예	건축	
전체	1,930	3.1	2.2	1.8	1.7	1.4	0.9	0.4	0.1	
거주 권역	동부권역	443	2.9	2.3	1.4	0.7	0.9	1.8	0.5	0.0
	중부권역	1,068	3.1	2.2	2.2	2.5	1.2	0.7	0.5	0.0
	서부권역	419	3.3	2.1	1.2	0.7	2.4	0.5	0.2	0.2

- 거주권역별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동부권역은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이 있다’ 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서부권역은 창작공간이 ‘없다’ 는 응답이 35.6%로 타지역에 비해 예술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표6-5] 거주권역별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이 있음	거주공간 내 별도 개인 공간이 있음	공동활동 공간이 있음	없음
전체		1,930	36.6	16.4	14.1	32.8
거주 권역	동부권역	443	39.3	17.2	12.4	31.2
	중부권역	1,068	36.6	15.4	15.6	32.4
	서부권역	419	33.9	18.4	12.2	35.6

- 또한 이용 중인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부권역 거주자는 ‘높은 임대료/이용료’ (39.0%)를 서부권역은 ‘협소한 공간’ (42.6%)를 가장 많이 꼽았음

[표6-6] 거주권역별 이용 중인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 1+2 종합순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협소한 공간	높은 임대료/이용료	임대/이용기간의 불안정성	접근성(교통편 등) 불편	이용시간 불편	복잡한 대관절차	기타
전체		1,297	36.5	34.2	23.0	14.4	11.2	5.5	37.9
거주 권역	동부권역	305	33.1	39.0	24.3	15.4	11.1	5.6	35.1
	중부권역	722	35.7	32.5	21.2	14.0	10.9	6.2	39.8
	서부권역	270	42.6	33.0	26.3	14.4	11.9	3.3	36.3

- 거주권역별 경력단절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에서 34.6%로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부권역(32.8%), 서부권역(2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서부권역은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4.2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권역별로 경력단절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음

[표6-7] 거주권역별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평균 경력단절 기간(년)
전체		1,607	32.4	67.6	3.7
거주 권역	동부권역	358	34.6	65.4	3.5
	중부권역	897	32.8	67.2	3.5
	서부권역	352	29.0	71.0	4.2

- 거주권역별 지원받은 기관을 물어본 결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비율은 중부권역에서 6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동부권역(61.2%), 서부권역(57.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서부권역 거주자는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험이 40.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6-8] 거주권역별 지원받은 기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남문화 예술진흥원	시/군 지자체	경상남도	예술관련 진흥기관	중앙정부 (문체부)	기초문화 재단	기타	
전체	1,060	61.9	29.2	19.9	16.5	12.5	7.2	3.1	
거주 권역	동부권역	242	61.2	28.1	20.2	16.1	13.2	8.3	3.7
	중부권역	590	63.9	25.4	19.8	18.3	13.2	6.8	2.5
	서부권역	228	57.5	40.4	19.7	12.3	9.6	7.0	3.9

- 예술활동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 라는 응답은 서부권역에서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부권역(47.9%), 동부권역(42.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는 동부권역(31.0%)에서 타지역 대비 높게 나타나, 동부권역 거주자에게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6-9] 거주권역별 예술활동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방법이 어려워 증도에 포기해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547	47.3	22.9	11.7	6.9	5.5	5.7	
거주 권역	동부권역	116	42.2	31.0	12.9	6.0	4.3	3.4
	중부권역	307	47.9	21.5	10.4	8.1	5.2	6.8
	서부권역	124	50.8	18.5	13.7	4.8	7.3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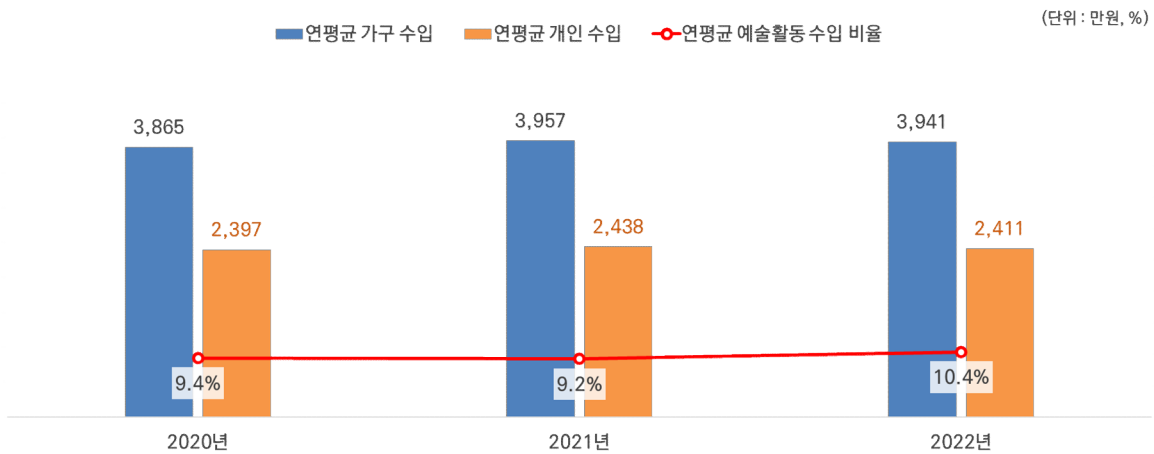
## 2. 경남 생활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

### 가. 일반현황

-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생활예술인은 총 509명임
  - 여성 53.2%, 남성 46.8%
  - 60대 이상이 53.0%로 가장 많고, 50대 28.5%, 40대가 7.9%, 30대가 7.3%, 20대가 3.3% 순 (평균연령 58.8세)
  - 거주지역은 창원시 40.0%, 진주시 14.1%, 김해시 8.8%로 3곳의 전문예술인이 전체 63.6%를 차지
  - 활동분야는 문학이 38.9%, 미술이 22.0%, 사진이 8.8%, 음악(양악, 클래식) 5.9% 등의 순

### 나. 수입 및 지출 수준

- 생활예술인 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2020년 3,865만원, 2021년 3,957만원, 2022년 3,941만원, 개인 연평균 수입은 2020년 2,397만원, 2021년 2,438만원, 2022년 2,411만원으로 2022년 수입은 2020년 수입보다 증가하였으나, 2021년 수입에 비해 평균 27만원 감소
- 개인 예술활동 수입 금액은 2020년은 224만원, 2021년은 22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22년에는 평균 250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5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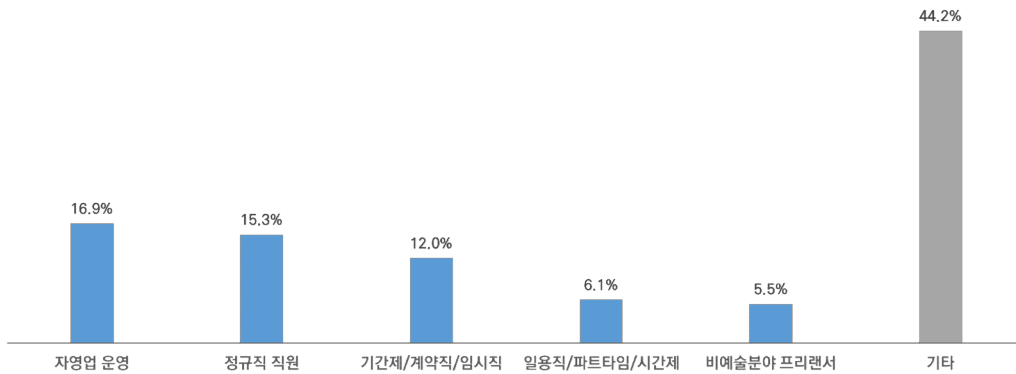


<그림6-12> 생활예술인 최근 3개년 간 수입현황 (n=435)

- 전문예술인 수입 결과와 비교하면, 2022년 기준 가구 총 수입은 평균 309만원 정도 많고, 개인 총 수입 역시 약 322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예술활동 수입은 전문예술인 활동수입의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현재의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생활비가 전체 62.0%로 가장 높고 예술창작활동비는 15.3%,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는 10.6% 수준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중은 전체 지출액의 25.9%를 차지

## 다. 예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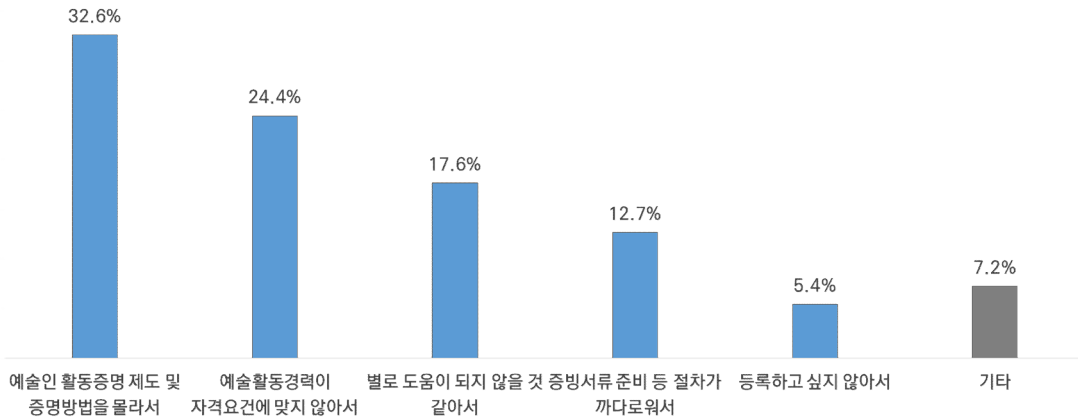
- 생활예술인의 주 활동지역으로 창원시가 46.6%로 가장 많고, 진주시 17.7%, 경남 지역 이외 활동이 9.8% 등의 순임
  - 참고로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함천군의 모든 생활예술인의 주 활동지역에는 거주지역 내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의 타 경제활동 유형으로 기타응답(44.2%)을 제외하면 자영업 운영이 1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직원 15.3%,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 12.0%,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6.1%, 비예술분야 프리랜서 5.5% 순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의 기타응답 비율이 높은 이유로 은퇴 이후 취미 형태로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6-13> 타 분야 경제활동 유형 비교 (n=509)

- 생활예술인의 활동경력은 약 14.6년 정도임
  - 고연령의 생활예술인의 예술활동 시작 시점은 대략 40대 이후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중 56.6%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예술인의 발급비율(81.2%)과 비교하면, 약 24.6%p 적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발급 받은 연도는 2022년이 31.9%로 가장 많고, 2018년 이전이 26.0%, 2020년이 16.0%, 2019년이 13.9%, 2021년이 12.2% 순으로 나타남 (최근 3년 이내 발급률 : 60.1%)
- 반면, 활동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이유로 제도나 증명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한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아 이러한 내용의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며, 예술활동경력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가 24.4%, 도움이 안되어서가 17.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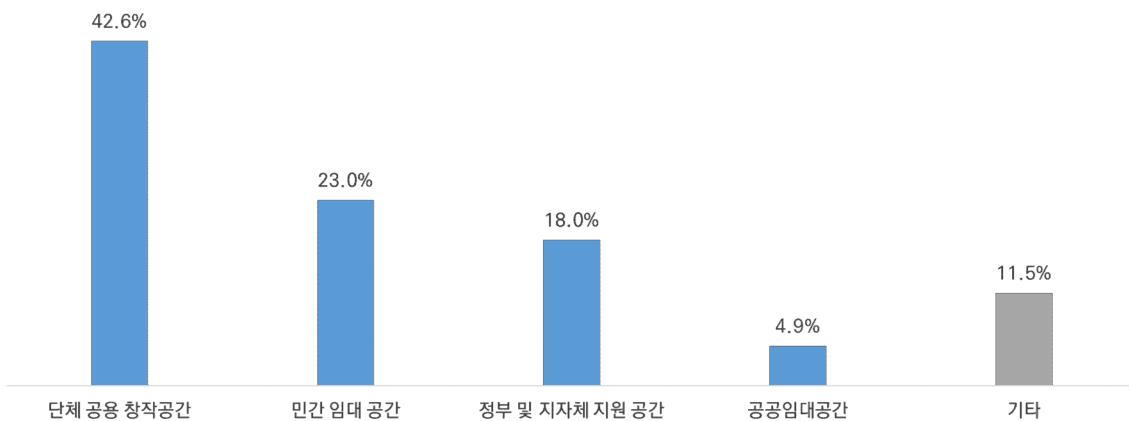




<그림6-14> 예술인 활동증명 미발급 이유 (n=221)

## 라. 창작활동 여건

- 생활예술인 중 창작활동여건 중 창작공간을 보유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는 전체 48.7%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공간이 아닌 외부 개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18.1%임
  - 외부 공간 이용형태는 주로 임대(월세) 형태가 가장 많고, 외부 공간의 크기는 약 32.3평, 월 임대료는 평균 37.7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공동으로 활동하는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체 공용 창작공간인 경우가 4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간 임대 공간이 23.0%,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공간이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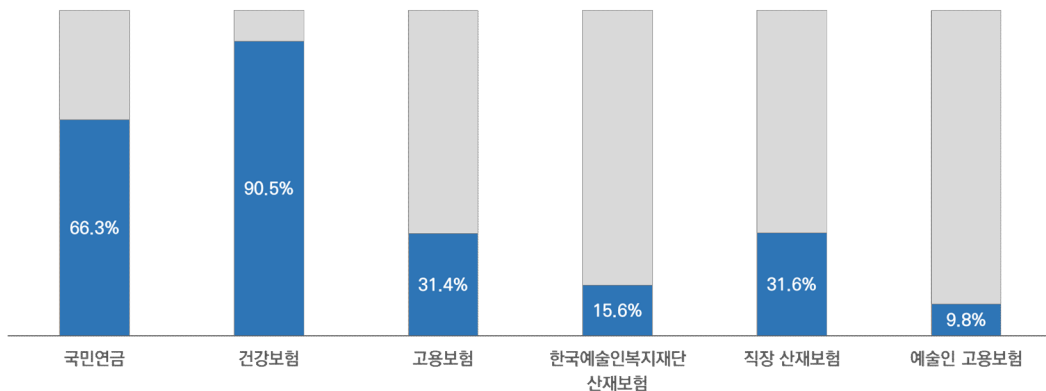


<그림6-15> 공동활동 공간 유형 (n=61)

- 창작공간이 없는 경우 주 활동장소는 자택을 이용하는 경우가 79.8%로 대부분이고, 그 밖에 학교/학원/회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4.8%,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및 전시, 공연을 위해 외부 장소를 대관하여 이용한 경험도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고, 주로 실연예술 분야의 경우 장소 대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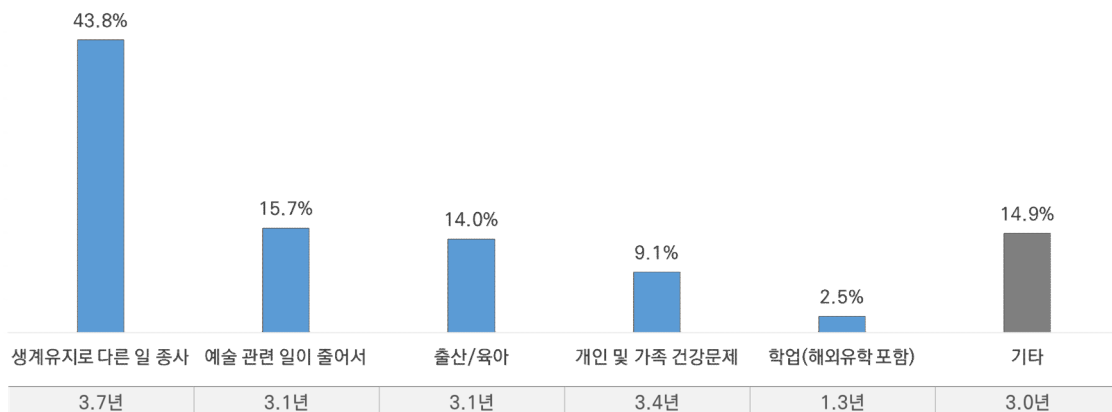
### 마. 예술인 생활 및 근로환경

- 4대 보험 중 고용보험(31.4%)과 직장 산재보험(31.6%)의 가입률이 가장 낮았으나, 전문예술인의 가입률보다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 중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현재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 고용보험 및 직장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5.6% 수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9.8%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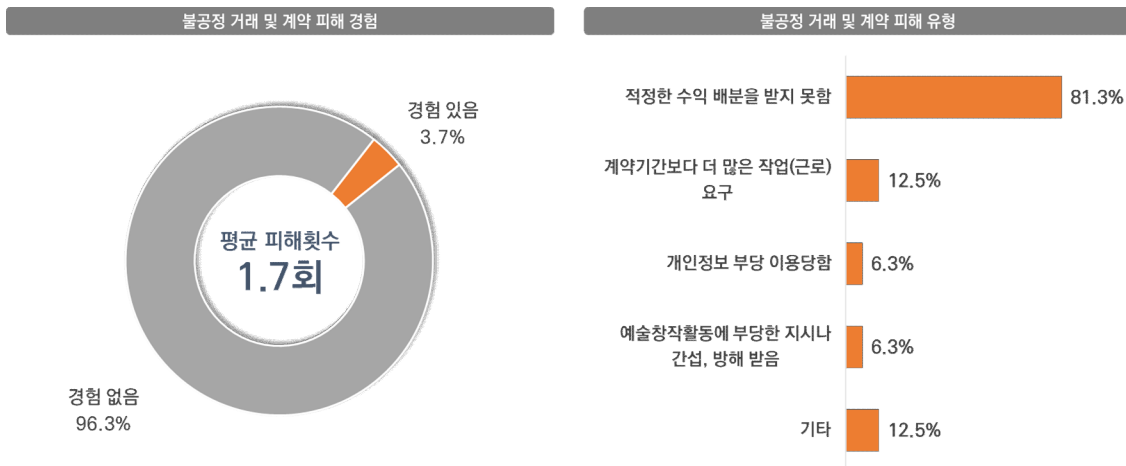
<그림6-16> 4대 보험 종류별 가입률 (n=430)

- 생활예술인 중 28.2%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었으며, 이 때 경력단절 기간은 약 3.3년임
-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서는 다른 일에 종사한 경우가 전체 4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관련 일이 줄어서가 15.7%, 출산/육아 14.0%, 개인 및 가족 건강문제 9.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생활예술인의 경우 전문예술인과 달리 생업 및 주업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생계유지는 본업에 종사하느라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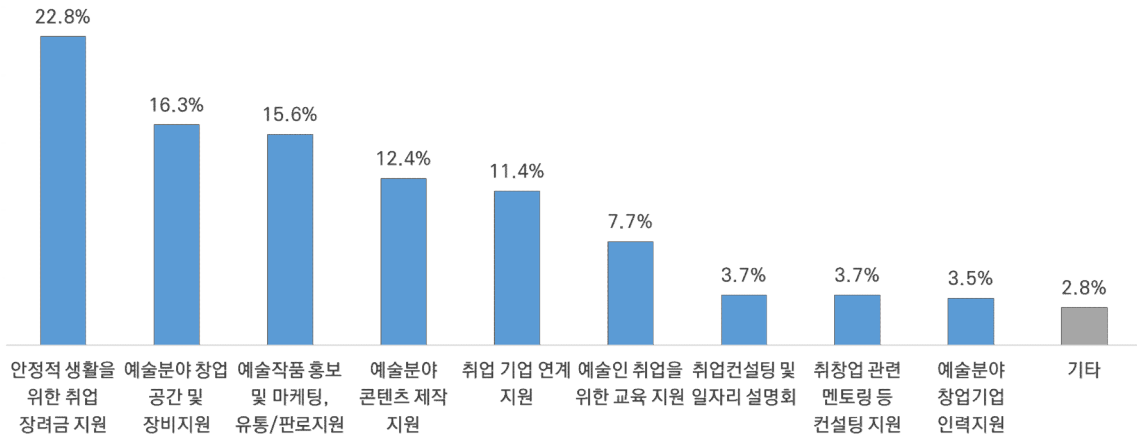
<그림6-17> 예술활동 경력단절 이유 (n=121)

- 생활예술인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약 44.3%로 나타났으나, 아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52.9%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생활예술인 중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를 경험한 경우는 3.7%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였으나, 앞서 계약서 미체결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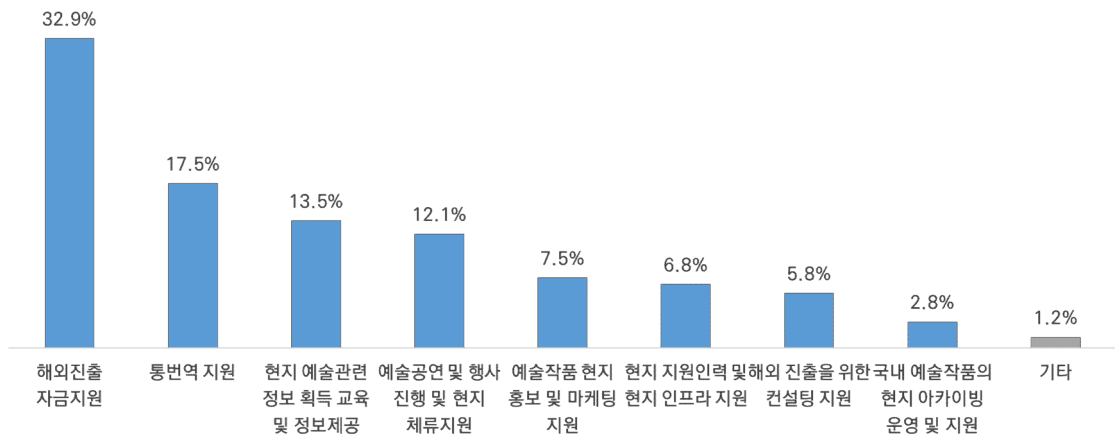
<그림6-18>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피해경험 n=429, 피해유형 n=16)

- 지난 2022년 9월에 실시된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51.7%)가 과반수 이상이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38.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대상 취/창업 지원사업 인지도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46.2%)도 많았으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43.6%로 높게 나타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해당 지원사업 시행 시 참여의향률은 60.8% 수준으로 전문예술인의 참여의향률(77.8%)보다는 낮았으나, 전체적인 관심도는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음
- 이 때 필요한 지원 분야로는 안정적 생활을 위한 취업 장려금 지원(22.8%)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창업과 관련해서는 공간 및 장비지원(16.3%)도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6-19> 예술인 취/창업 지원 시 우선 필요지원 분야 (n=429)

- 예술인을 위한 예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교류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의향률은 73.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선호하는 교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2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21.5%, 영국 17.7%, 중국 8.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해외교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결과 역시 자금지원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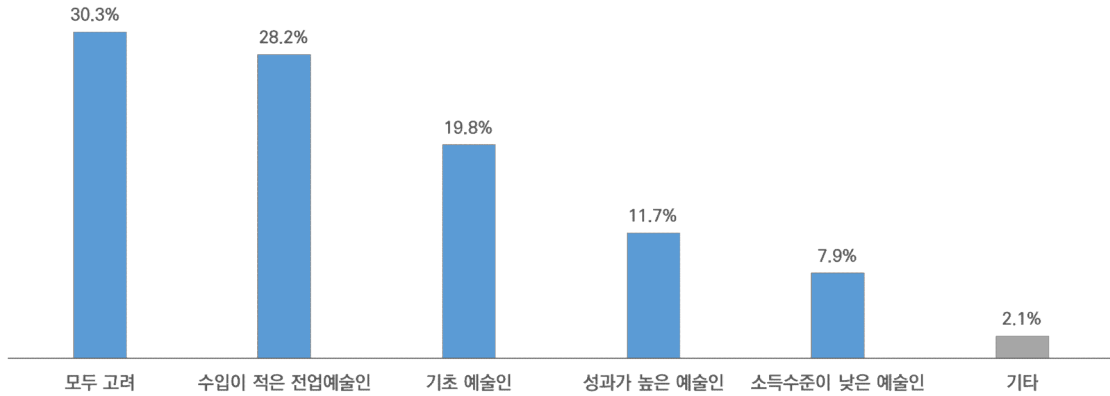


<그림6-20> 해외교류 지원사업 추진 시 우선 필요지원 분야 (n=429)

## 바.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 생활예술인의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활용이 29.1%로 가장 많았고, 단체 및 협회 활용이 29.1%, 기관 홈페이지 활용이 17.2% 등의 비율을 보임
- 예술인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생활수준과 예술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의 선호도(38.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지원정책 혜택의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인식결과 활동분야, 전업여부, 생활수준, 예술적 성과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30.3%로 가장 높고, 수입이 적은 전업예술인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28.2% 순으로 나타남



<그림6-21> 예술인 지원정책 혜택 우선순위 (n=429)

- 도내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활동지원의 부족이 52.0%로 나타났고, 인프라 부족이 22.8% 순으로 조사됨
- 지역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수준 종합적인 인식도는 100점 만점에 31.0점임
  - 이는 ‘다소 부족한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의 공간 확보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됨 특히, 창작공간 확보에 대한 인식(29.9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예술인의 54.1%는 최근 3년 이내 예술활동 지원 수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원유형은 예술활동 지원 유형(93.5%)이며, 지원받은 기관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이 전체 60.3%를 차지함
  -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탈락해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지원정책에 대한 미인지 비율은 25.4%로 나타남
- 경상남도 예술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정책은 ‘도민 예술교육 확대’, ‘행정 전문성 확보’, ‘도 기능 확대’, ‘문화계 의사반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는 ‘예술인 일자리사업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51.3%)에 가장 많은 응답이 모였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도(42.7%)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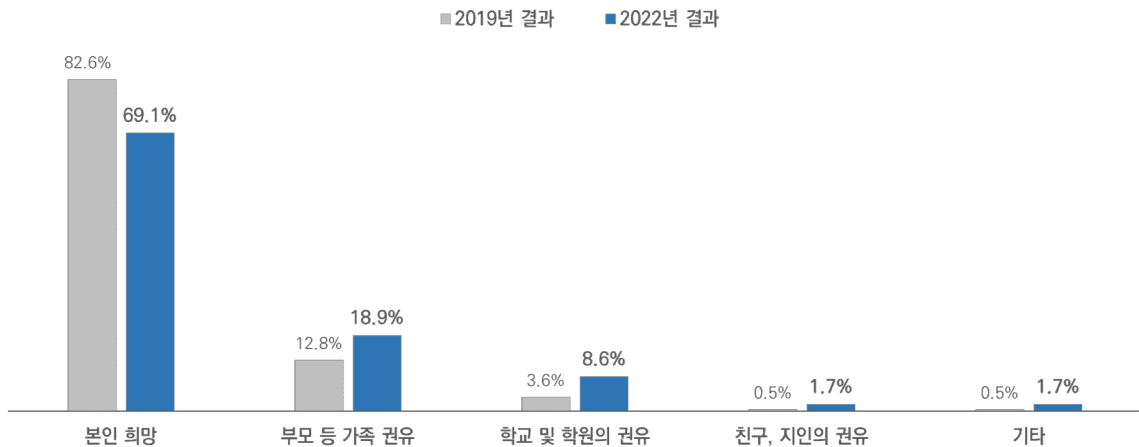
### 3. 경남 예비예술인 예술활동 현황 진단

#### 가. 일반현황

-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예비예술인은 총175명임
  - 여성 69.7%, 남성 30.3%
  - 전공은 디자인학과가 28.0%로 가장 많고, 음악학과 22.9%, 미술학과 18.9%, 콘텐츠관련전공 14.3%, 무용학과 7.4%, 음악교육과 4.6%, 미술교육과 4.0% 순임

#### 나. 전공 선택 및 만족도

- 2022년 예비예술인들의 전공 선택 이유는 본인 희망이 69.1%로 가장 많고, 가족의 권유가 18.9%, 학교 및 학원 권유가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본인 희망으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13.5%p 감소한 반면, 부모 등 가족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는 6.1%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학교 및 학원의 권유나 친구 및 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비율도 2019년 보다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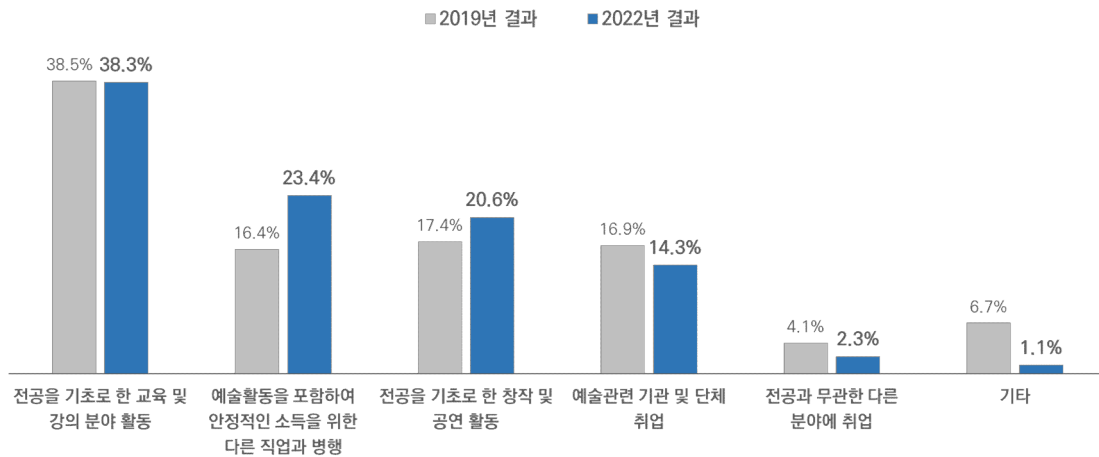
<그림6-22> 전공(학과) 선택 이유 비교 (2019년 n=195, 2022년 n=175)

- 예비예술인들의 현재 전공(학과) 및 교육과정의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5.9점 수준으로 이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임
  - 전공 교육내용 만족도가 67.6점으로 가장 높고, 전문성 확보 만족도가 62.4점, 교육 환경 만족도가 54.1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 관점에서의 전공 만족도는 45.3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만족+만족) 2019년 63.6%에서 2022년 61.7%로 약 1.9%p 감소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불만족+불만족)은 약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2019년의 전공 만족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다. 향후 진로

- 예비예술인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전공을 기초로 한 교육이나 강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활동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타 직업과 병행이 23.4%, 전공을 기초로 한 창작 및 공연활동이 20.6% 등의 순임
-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전공을 기초로 한 교육 및 강의 분야 활동의 비율은 거의 변화없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안정적 소득을 위한 다른 직업과의 병행은 7.0%p 증가한 것
  - 전공을 기초로 한 창작 및 공연 활동에 대한 비율도 2019년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 안정성을 위한 타 분야 종사 계획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계획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6-23> 졸업 후 진로계획 비교 (2019년 n=195, 2022년 n=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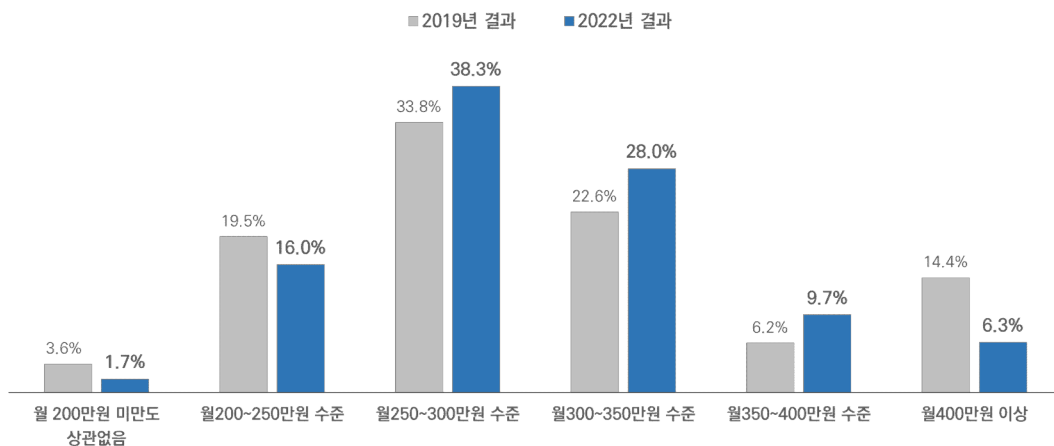
- 예비예술인의 현재 고민 중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단연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예술활동의 경제적 수입 부족(16.6%)과 일자리 부족(16.0%)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예술가로서의 역량 부족에 대한 고민 비율은 2019년 대비 11.5%p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비율은 2019년 조사항목에는 없었던 예술활동의 경제적 수입 부족 고민에 16.6%의 응답비율이 대체된 것으로 확인
- 졸업 후 희망하는 활동지역은 도내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비율도 44.6%로 나타남
- 희망지역별 선택이유로 도내 지역 희망인 경우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던 곳이라는 안정감, 가족 등 친지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수도권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술활동 기반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여러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지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경상남도 외 지역을 희망하는 경우 이유로 예술활동 기반이 좋다는 이유는 2019년 대비 매우 큰 비율 증가를 보였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이유 중 비용을 고려한다는 이유도 2019년 대비 2022년에 7.6%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외 지역을 희망하는 이유 중 여러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2019년 대비 16.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의 권유에 의해 희망한다는 비율 역시 2019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6-10] 예술활동 희망지역 선택 이유 비교 (2019 vs 2022)

구분	2019년 결과			2022년 결과		
	전체	경상남도 내	경상남도 외	전체	경상남도 내	경상남도 외
예술활동 기반이 더 좋아서	28.2%	7.5%	43.0%	23.4%	6.0%	81.0%
비용을 고려해서	13.8%	23.7%	7.0%	17.1%	31.3%	5.1%
예술활동 외 여러 일자리가 많아서	12.8%	8.6%	18.6%	17.1%	3.6%	34.6%
가족 및 친지 등이 살고 있어서	39.0%	57.0%	26.7%	15.4%	16.9%	49.1%
지금까지 살던 곳이어서				14.3%	30.1%	0.0%
예술분야 선후배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서	-	-	-	5.7%	6.0%	30.1%
가족의 권유에 의해	1.0%	1.1%	1.2%	4.6%	6.0%	30.0%
기타	3.1%	2.2%	3.5%	2.3%	0.0%	70.0%

- 예비예술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구직경로는 취업관련 사이트가 전체 51.4%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수, 선배 등의 소개가 26.3%, 가족, 친지 소개가 9.1% 등의 순임
- 향후 예술활동을 시작할 경우 희망하는 월평균 수입 수준은 월 250~300만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월 300~350만원 수준이 28.0%, 월 200~250만원 수준이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19년 결과와 비교하면, 월 250~300만원에 대한 응답비율은 약 4.5%p 증가하였고, 월 300~340만원 수준은 5.4%p, 월 350~400만원 수준은 약 3.5%p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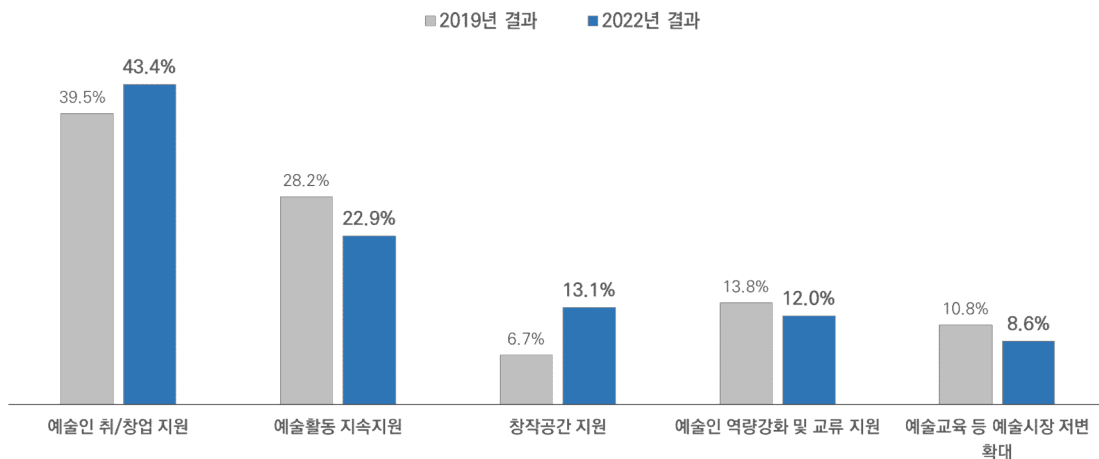


<그림6-24> 희망하는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 비교 (2019년 n=195, 2022년 n=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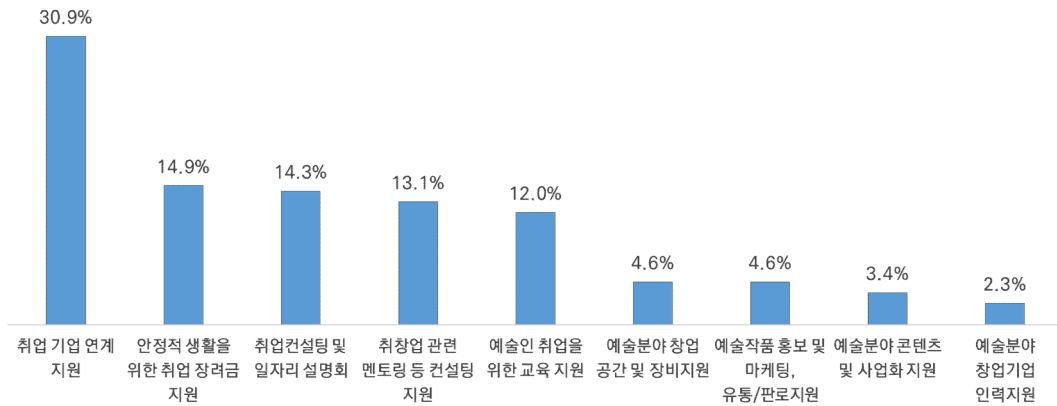
## 라. 경남 예술현황 및 지원사업 인식

- 경상남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인지도 조사결과, 제시된 사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53.7%로 나타났고, 들어본 적이 있는 사업 중에서는 경남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이 22.9%, 청년예술인파견 지원사업이 21.7%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사업 중 중요한 사업은 예술인 취/창업 지원이 전체 4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활동 지속지원이 22.9%, 창작공간 지원이 13.1% 등의 순임
- 지난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취/창업 지원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술활동 지속지원은 5.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의 필요도는 2019년 대비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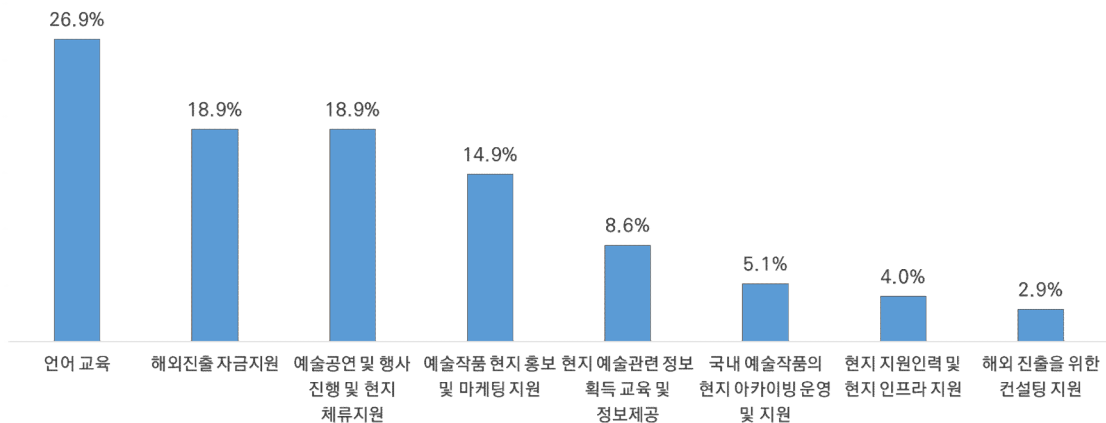
<그림6-25> 경남 청년예술인 정책 중요요소 비교 (2019년 n=195, 2022년 n=175)

- 예술인 대상 취/창업 지원사업 인지도 조사결과, 들은 적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 48.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은 34.5%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임
- 반면,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의향은 77.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선호하는 취/창업 유형 중에서는 취업 형태가 5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업 형태는 12.7%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보임
- 취/창업 지원 시 우선 필요한 지원사항은 취업 기업 연계 지원이 전체 3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장려금 지원 14.9%,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설명회가 14.3%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6-26> 예술인 취/창업 지원 중 우선 필요지원 (n=175)

- 도내 예술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교류 확대 지원사업 진행 시 참여의향에 대해 전체 예비예술인의 80.6%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국가는 영국이 전체 1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해외교류 지원 시 우선 필요한 분야로 언어 교육이 전체 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금지원과 현지 체류지원이 각각 18.9%, 현지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14.9% 등의 순으로 조사



<그림6-27> 해외교류 지원 시 우선 필요분야 (n=175)

- 예비예술인의 자립성 확보와 전문예술가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하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63.4%로 나타났고, 필요성은 있으나 직접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5.7%로 조사됨
- 필요한 멘토링 분야로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전체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연 및 전시 등 행사 참여안내가 23.1%, 지원사업 정보획득 및 참여방법이 17.9% 등의 순으로 조사됨

| 2 0 2 2 년    경 남    예 술 인    실 태 조 사 |

## 제3장 경남 예술인 복지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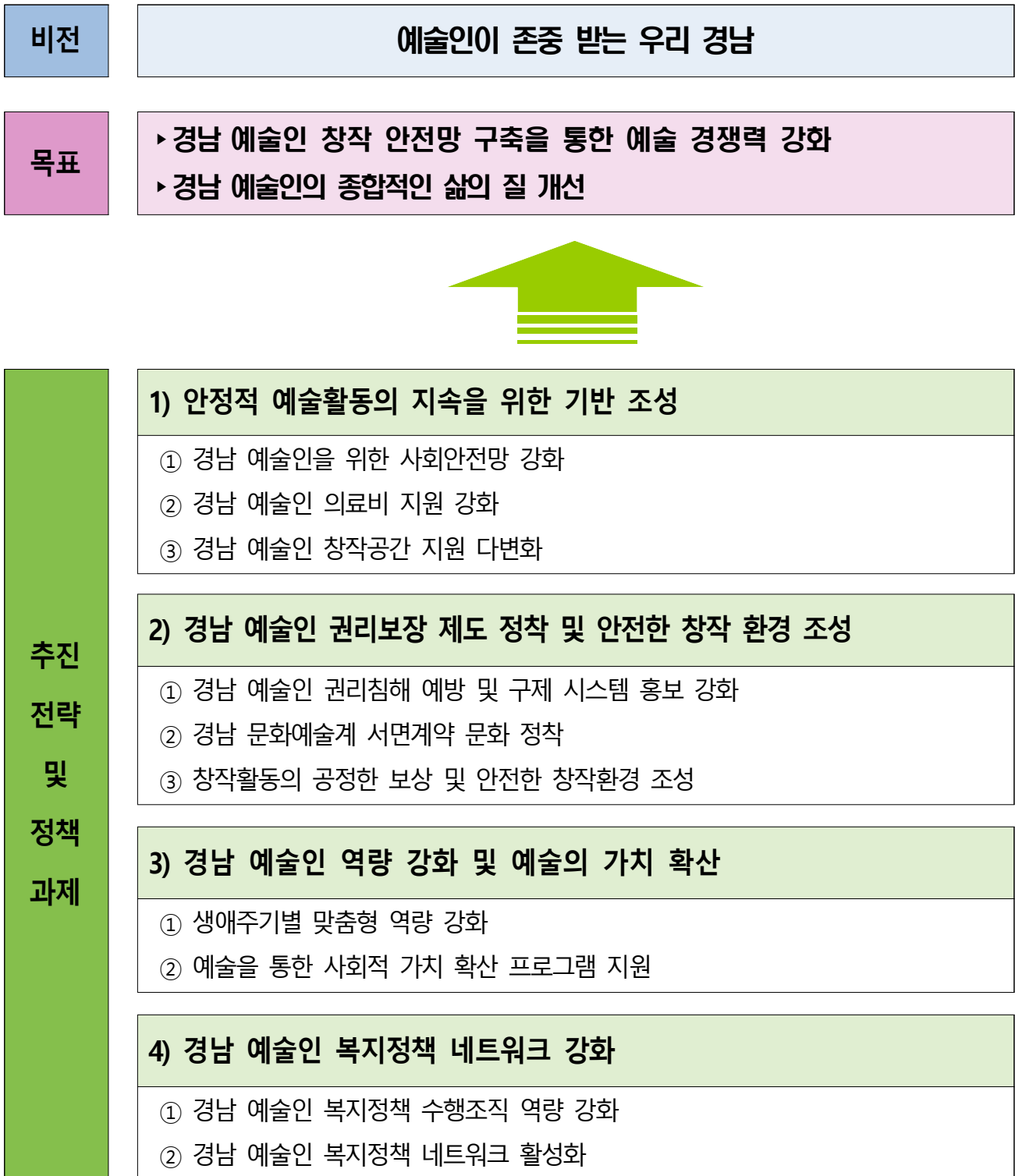


## 1. 경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제안 (2023~2027)

### 가. 추진 배경

- 예술인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다른 직군에 비해 상해,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부족
  - 프로젝트 기반의 불연속적 고용 형태 및 낮은 수입, 구두계약 문화 등의 현장 특성으로 예술 활동 전념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
    - \* 2022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저조한 전업예술인 비율(32.8%), 낮은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58.7%), 낮은 수입(연1,096만원), 예술분야 입문 후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우는 경남 전체 예술인의 15.5%에 불과
  - 다른 직군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부분이 없도록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수의 예술행사 취소 및 중단으로 인해 예술인의 재정적 피해 상황 심각
  
-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직업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 필요
  -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
  - 예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교육·훈련기회 확대, 합리적 처우 등 정책적인 지원 필요
  -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장기적, 수요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예술인 복지정책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예술 현장의 의견 수렴·참여 활성화 필요
  - 중앙-지사체, 복지지원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정책 주체간의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나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여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나. 비전 및 전략 체계도



## 다. 추진과제

### 추진전략 1 | 안정적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

#### 1) 경남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홍보 강화)** 가입 대상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23~)
  - 보험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예술인 등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홍보·상담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수혜자 확대
  - 예술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공공분야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대상 홍보·안내 강화('23~)
-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강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저소득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 해소를 위한 가입 지원 및 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안내
  - \* 국민연금 보험료(30~50%), 산재보험료(50~90%) 지원 제도 홍보 및 안내('23~)
- **(금융서비스 지원 제도 홍보 강화)** 한국예술복지재단 시행, 의료비·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당 최대 700만원)·전세자금 대출 등 저금리 금융서비스 제공('23년 180억원) 사업 홍보·안내('23~)

#### 2) 경남 예술인 의료 지원 강화

- **(예술인 의료비 지원 확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경남 예술인에게 의료복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회복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중위소득 120%이하 경남 예술인
  -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1인 50만원 한도 내 지원

#### 3) 경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다변화

- **(기존 창작공간 지원 다변화)** 창·제작, 교류·교육, 시연·유통 등 예술활동과 예술비즈니스를 위한 기존 창작공간 지원 확대 및 다변화 ('23~)
-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홍보 강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행, 문학·시각예술 등 5개 분야 18개 국제 레지던스 등 세계적인 창작 프로그램에 경남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23~)

**추진전략 2**    **경남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정착 및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1) 경남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홍보 강화**

- (권리보장 제도 및 체계 홍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권리침해 관련 신고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및 피해지원 체계 개편 내용 홍보·안내('23)

기존 신고대상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2022.9.25.) 신고대상 범위 확대
불공정행위	▶ 예술의 자유 침해                      ▶ 예술지원사업 차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                ▶ 불이익 조치 등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및 신고사건의 피해구제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구성 및 운영('23~)
- (지원센터) 권리침해 전문상담(법률심리), 신고접수부터 피해지원까지 전담하는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예술인신문고) 개소('23 하반기, 대학로)

- (분쟁조정 및 피해지원 제도 홍보) 상생 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홍보·안내

- (분쟁조정) 예술인 상호 간 또는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간 당사자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를시범 운영('23~) 홍보·안내
- (피해지원) 피해 유형별(공정성 침해, 보수 미지급, 성희롱 등) 지원 기능을 세분화하고 매뉴얼 마련 및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23~) 홍보·안내

- (예방 교육 홍보 및 연구) 예술인 권리보호(계약, 저작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 의식고취('23~)
- (권리보장법 교육·홍보)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실시 방안 연구('23~)

**2) 경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서면계약 체결 지원) 계약서 작성 지원부터 미작성에 대한 피해구제까지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종합 지원

- (법률상담) 예술 분야별 계약내용, 계약형식 등이 공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 자문단(변호사노무사 등) 연계
- (전자계약 체결) 전자우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고 교부보존할 수 있는 전자계약 플랫폼 이용 지원



- (홍보 확대) 계약 상담 사례집 배포(계속), 서면계약 실천 확산 예술인 응원 릴레이와 같은 수요자 직접 홍보 강화('23년~)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환경 변화(예술인 고용보험 등) 및 현장 의견 반영한 주기적 검토

■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 11개 분야 71종**

공연예술(5), 미술(12), 공예(5), 영화(8), 만화(6), 대중문화(6), 방송(6), 출판(10), 저작권(4), 게임(5), 애니메이션(4)

- 표준계약서가 없어 불공정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파악하여 표준계약서 추가 개발('23년~)
- 예술 분야별, 계약서 종류별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 마련 및 실태조사 제도화 ('25,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3) 창작활동의 공정한 보상 및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 **(창작대가 현실화)**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지원 분야별 창작 대가 관련 기준 정비

■ **2023년 예술 분야별 창작대가 개편 내용(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시각예술창작산실(25억원)**

- ①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22.2)에 따라 창작대가 지급기준(참여비, 창작사례비)을 도입
- ② 사업별 지원규모 상향 및 정액화 추진  
우수전시지원 ('21)2~8,000만원 → ('22)4,000만원~1억원 → ('23)5,000만원/1억원 정액 중견작가 프로모션기획 ('22)최대 3,000만원 → ('23)3,000만원 정액

▶ **공연예술창작산실(83억원)**

공연계 종사자의 직무별 최소·평균 사례비 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연 시범 적용)

▶ **문학창작산실(27억원)**

문예지발간지원 원고료 평균 단가 상승 적용 ('21년 대비 문예지 발간사업 원고료 평균 단가 22.3% 상승 적용) 및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

- **(문화시설 안전관리)** 경남 예술인이 안전하게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등 고위험 안전 취약 문화시설 중심 시설 개보수, 소규모 시설 안전진단 지원 등 종합적인 안전 지원
  - 민간의 소규모 공연장 및 미래 종사자 등 대상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안전 교육, 안전 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 등 지원하여 안전문화 정착

**추진전략 3**    **경남 예술인 역량 강화 및 예술의 가치 확산**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 강화**

- **(예비예술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의 현장·행정역량 강화 지원  
 신설('23년 신규)에 따른 경남 예비예술인에 대한 제도 소개 및 안내 홍보 강화  
 \* 예술대학의 창작 프로젝트 지원(50억원), 예술 행정 교육프로그램 지원(5억원)
  
- **(생애 첫 지원)** 진입 초기 청년예술가를 위해 문예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 대상 창작 준비·발표 지원
  - 예술활동증명이 되지않는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 지원
  - 예술활동 경험과 기반이 부족한 도내 청년 예술가에게 역량교육, 우수사례견학, 개별 실습(전시, 출판, 실연) 등을 통해 기존 문화예술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개 발표 예술활동 기회 제공
  
- **(신진예술인 지원)**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200만원) 지원
  - 잠재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신진예술인에게 예술 외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금 지원 강화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도내 예술인(1인당 200만원 지원)
  
- **(경력형 일자리 지원)** 신중년 예술인을 도내 기관시설에 파견, 민·관 협업에 기반한 프로젝트 참여로 예술적 감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 경남예술인

**2)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 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안정된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직업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인 파견 지원
  - 예술인의 안정된 예술창작환경 조성과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5인 1조 (리더예술인 1, 참여예술인4)로 도내 문화기반시설(마을·기업·기관 포함)에 파견되어 예술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 협업유형은 문화자원 기록화, 문화사업 발굴, 문화도시 디자인, 문화자산 가치화,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 활성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등 전개('23~)
  -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후원 활성화 캠페인 추진 및 예술가치 및 예술후원 인식 제고
  
-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 기업의 예술단체 결연 지원 확대 추진, 문화예술후원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계속)
  
- **(예술인 패스 확대)** 경남 예술인 문화예술 분야 소비 지원을 위해 △제휴기관 확대  
△실생활연계를 통한 혜택 확대 등 개선 추진

**추진전략 4**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

**1)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수행 조직 역량 강화**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역량 강화)**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량 강화
  - 예술인 복지제도 연구, 경남 예술인 통계 분석 등 기획·연구기능 강화
  - 복잡한 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 간 중간매개자 역할 수행
  - 권리 예방 교육 중심에서 예술인 직업 교육 및 훈련 등으로 업무 외연 확대
  
- **(예술인실태조사 개선)** 예술인의 생활·창작·소득 등 종합실태 조사에 부합하게 조사 유형 다양화 및 설문 체계화 등 개선 추진

**2)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중앙-지자체, 복지지원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정책 주체간의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중앙-지자체, 복지지원기관, 문화예술기관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정책 주체간의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
  - 도내 문화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대외 협력 기능 강화
  
- **(예술현장의 니즈 파악·대처)**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나 요청사항 등을 파악하여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라.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b>[전략 1] 안정적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b>			
<b>① 경남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b>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홍보 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금융서비스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b>② 경남 예술인 의료 지원 강화</b>			
○ 예술인 의료비 지원 확대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b>③ 경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다변화</b>			
○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창작공간 지원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홍보 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b>[전략 2] 경남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정착 및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b>			
<b>① 경남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홍보 강화</b>			
○ 권리보장 제도 및 체계 홍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분쟁조정 및 피해지원 제도 홍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예방 교육 홍보 및 연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b>② 경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b>			
○ 서면계약 체결 지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b>③ 창작활동의 공정한 보상 및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b>			
○ 창작대가 현실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문화시설 안전관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기반시설 예술인(단체)	'23~

추진과제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b>[전략 3] 경남 예술인 역량 강화 및 예술의 가치 확산</b>			
<b>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 강화</b>			
○ 예비예술인 지원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 생애 첫 지원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 신진예술인 지원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 경력형 일자리 지원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b>②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 지원</b>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23~
○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단체)	'23~
○ 예술인 패스 확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b>[전략 4]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b>			
<b>①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수행 조직 역량 강화</b>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역량 강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도	'23~
○ 예술인실태조사 개선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5~
<b>②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활성화</b>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도, 공공기관 예술인(단체)	'23~
○ 예술현장의 니즈 파악대처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23~

마.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추진재원
	'23	'24	'25	'26	'27	
<b>[전략 1] 안정적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b>						
<b>① 경남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b>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홍보 강화	-	3	5	5	5	도비
○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강화	-	3	5	5	5	도비
○ 금융서비스 지원 제도 홍보 강화	-	3	5	5	5	도비
<b>② 경남 예술인 의료 지원 강화</b>						
○ 예술인 의료비 지원 확대	5	10	15	20	25	도비
<b>③ 경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다변화</b>						
○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창작공간 지원	121	150	170	200	250	도비
○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홍보 강화	-	3	5	5	5	도비
<b>[전략 2] 경남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정착 및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b>						
<b>① 경남 예술인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홍보 강화</b>						
○ 권리보장 제도 및 체계 홍보	-	5	5	5	5	도비
○ 분쟁조정 및 피해지원 제도 홍보	-	2	2	2	2	도비
○ 예방 교육 홍보 및 연구	-	15	15	15	15	도비
<b>② 경남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 정착</b>						
○ 서면계약 체결 지원	-	5	5	5	5	도비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10	10	10	10	도비
<b>③ 창작활동의 공정한 보상 및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b>						
○ 창작대가 현실화	-	5	5	5	5	도비
○ 문화시설 안전관리	-	50	100	150	200	도비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도별 소요예산					추진재원
	'23	'24	'25	'26	'27	
<b>[전략 3] 경남 예술인 역량 강화 및 예술의 가치 확산</b>						
<b>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 강화</b>						
○ 예비예술인 지원	-	30	50	70	100	도비
○ 생애 첫 지원	50	70	100	120	150	도비
○ 신진예술인 지원	100	150	200	250	300	도비
○ 경력형 일자리 지원	116	150	150	150	200	도비
<b>②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그램 지원</b>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100	120	150	170	200	도비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	10	10	10	10	도비
○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	-	5	5	5	5	도비
○ 예술인 패스 확대	-	5	5	5	5	도비
<b>[전략 4]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강화</b>						
<b>①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수행 조직 역량 강화</b>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역량 강화	-	10	15	15	15	진흥원
○ 예술인실태조사 개선	-	-	100	-	-	도비
<b>② 경남 예술인 복지정책 네트워크 활성화</b>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	10	10	10	10	진흥원
○ 예술현장의 니즈 파악대처	-	5	10	10	10	진흥원
<b>계</b>	<b>492</b>	<b>829</b>	<b>1,152</b>	<b>1,247</b>	<b>1,542</b>	-



## 바. 비전 및 전략체계도 연계 추진과제 우선순위 설정

○ 비전 및 전략체계도와 연계하여 설정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우선순위	추진과제
1	○ 예술현장의 니즈 파악·대처
2	○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강화
3	○ 금융서비스 지원 제도 홍보 강화
4	○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 홍보 강화
5	○ 권리보장 제도 및 체계 홍보
6	○ 분쟁조정 및 피해지원 제도 홍보
7	○ 예방 교육 홍보 및 연구
8	○ 예술인 의료비 지원 확대
9	○ 문화시설 안전관리
10	○ 서면계약 체결 지원
11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12	○ 창작대가 현실화
13	○ 예술의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
14	○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창작공간 지원
15	○ 예비예술인 지원
16	○ 생애 첫 지원
17	○ 신진예술인 지원
18	○ 경력형 일자리 지원
19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20	○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 홍보 강화
21	○ 민간의 예술지원 확대
22	○ 예술인 패스 확대
23	○ 예술인실태조사 개선
24	○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25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역량 강화

## 2. 재원 확보 방안

### 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정 상황 및 구조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주요 재정 출처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 중 자체수입이 5%, 지자체(도비+시군비) 위탁사업비가 51%, 국비가 44%로 재원별 비중을 보면 지자체 위탁사업비 1위, 국비사업이 2위로 총 95%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진흥원은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린 재단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비단 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지역 문화재단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위탁 사업비 위주의 재원의 운영방식은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재단을 관리 감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재단이 지자체의 출연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재단의 설립초기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출연금, 중앙진흥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단 운용을 위한 이자수입 및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저금리 영향으로 대부분의 재단들이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인 정기예금 예치로는 기금증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현재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이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기금적립 이자수입금을 통한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예상되어 이자수입의 증대가 비관적이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적립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음
  - 그 예로 2013년도 서울문화재단은 기금을 허물어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해체되는 위기의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기금규모가 적은 재단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적립기금 원금 사용에 대한 요구는 적으나 기금 목표액 달성이 점점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독립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음

## 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재원 조성 방안

### 1) 지방세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기금 마련

- 중앙정부 기금인 문예진흥기금을 살펴보면, 기부금 및 모금수입 이외에 복권기금과 경륜, 경정의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 조성 금액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금임
- 현재 경륜, 경정, 경마 투표권의 판매 시 지방세인 레저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유사 사행산업인 카지노, 복권(로또, 연합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레저세 과세대상을 늘린다면 세수(稅收)의 신규 확보가 가능함
- 레저세의 추가 징수로 확보된 세수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역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명기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대한 재원을 추가로 명기하여, 이를 적립한다면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 지역문화진흥법

#####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자원 유치

- 2014년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또한, 현재 기업 메세나를 통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재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지원채널 역시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성을 지닌 기관을 통하는 것임
- 중앙의 경우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주도로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구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의 경우 정부와 기업, 예술인 사이의 역할을 수행할만한 행정적 구조나 상호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연구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에서 명확한 역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기구 및 책임기관으로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재원을 기업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역으로 끌어오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이는 단순히 일회성의 재화를 끌어오는 것뿐만이 아닌, 거버넌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금활동,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 교부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모든 자원마련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장기적인 기업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신뢰도의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이러한 거버넌스 중심역할에 앞서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대중적인 문화 사업에 치우치거나,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재단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에 근거한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투명한 재정사용에 대한 평가체제를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3)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유치

-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은 매년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자원조성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을 열거하면 표와 같음

▣ 주요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4) 국가, 경상남도 등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요구

- 국가, 경상남도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5항 제4호) 및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하여 사업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 물론 대행수수료의 금액 자체는 큰 규모는 아니겠으나, 이러한 자구책을 통해 지역문예진흥 재원 마련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어 수령 금액의 다과를 떠나 대행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기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출자·출연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5) '경남 예술인 사랑나눔' 경매 행사를 통한 예술인 의료비 조성

- 행사명 : 경남 예술인 사랑나눔 연말 미술품 경매 행사
- 일시 : 2023. 12월 중 일주일간
- 장소 :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내용
  - 경남 주요 미술작가 및 사회저명인사 등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 판매 및 경매를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문화예술인에게 기부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기금조성 목표액 : 1억원 (매출 목표액 : 2억원)
  - \* 판매액의 50%는 작품 기증자에게 지급하고, 기부하는 금액 50%에 대해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 부여

▣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행사명 : 예술인 사랑나눔 미술품 자선 행사
- 전시기간 : 2000. 12. 19~12.15
- 전시장소 :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장
- 경매일시 : 2009. 12. 15
  - \* 경매장소 : K옥션
- 참여현황
  - 기증작가 39명 / 전시작가 122명 / 참여화랑 46개처 / 출품작품 162점
- 조성기금 : 3억 1,900만원
- 조성기금 활용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0만원 이하

**6) BNK 문화사랑카드 공동 개발 및 경남문화진흥기금 조성**

- 경남은행과 문화사랑카드 금융상품을 공동개발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이 이용하는 금액의 0.1%를 경남문화진흥기금으로 조성
- 아울러 문화사랑카드 포인트 기부사업을 개발하여 민간 소액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990년대 문화사랑통장 한일은행과 공동 개발 및 문예진흥기금 조성
- 2000년대 문화사랑카드 KB 국민은행과 공동 개발 및 사랑티켓 기금 조성

**7) 고향사랑기금 활용 자원 조성**

-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금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고향사랑 기부금’ 이라고 정의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공을 의뢰·권유·요구할 수 있음
- 경남 지역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금 활용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제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 2022년 경남 예술인 실태조사

2023년 2월 인쇄

2023년 2월 발행

- 발 행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홈페이지 : <https://gcaf.or.kr/>
  - 주 소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번호 : 055-230-8600
  - 조사기관 : (주)비온드리서치
-